

# 오늘은 도서관 여행 도시 전주서(書) 머문다

## 시, '전주서(書) 스테이' 운영... 도서관·생활문화산업 함께 상생하는 체류형 북스테이 도서관 여행 신설

전국 유일의 도서관 여행 도시인 전주시가 책과 함께 머무르며 독서와 휴식을 즐기는 체류형 북스테이인 '전주서(書) 스테이' 도서관여행을 새롭게 선보인다.

시는 전주의 특색있는 도서관과 함께 책 읽는 숙소와 동네책방, 베이커리, 음악 등 생활문화공간에서 2시간 이상 머무며, 깊이 있는 몰입형 책 읽기와 다양한 체험, 사유와 휴식을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도서관 여행 프로그램인 '전주서(書) 스테이'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반나절 코스인 '책나절 코스'와 1박2일 코스인 '책한밤 코스'의 2가지 유형으로 진행된다.

올해 전주서(書) 스테이는 오는 16일부터 10월 16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먼저 '책나절' 코스는 회당 10명으로 총 4회에 걸쳐 진행되며, 전주의 오후를 한 편의 책으로 사유하며 공간에 스며드는 몰입형 반나절 코스이다.



'전주서(書) 스테이' 포스터

구체적으로 △1차(5월 15일): '책과 문장' (동문헌책도서관과 금성당에서 책으로 몰입하는 오늘의 경험을 기록

하는 시간) △2차(6월 19일): '책과 가치' (서학예술클마을도서관과 지향집에서 서로의 책을 교환하며 같이 읽고 가치를 나누며 확장하는 시간) △3차(9월 18일): '책과 음악' (다가여행자도서관과 해결리스닝룸에서 음악으로 완성되는 독서의 경험) △4차(10월 16일): '책과 빵' (한옥마을도서관과 도우베이커리에서 달콤한 맛으로 음미하는 독서의 여운)으로 구성됐다.

또한 '책한밤' 코스는 회당 20명으로 총 2회 책 읽는 숙소인 북앤타이프 호텔에서 진행되며, 전주의 낮과 밤으로 이어지는 독서 경험을 통해 책과 공간, 내가 온전히 하나가 되는 1박2일 체류형 사유 코스이다.

1차 책한밤 코스(4월 16일~17일)에서는 동네책방 '일요일의 침대' 서지석 대표와 함께 읽고 누리는 독서 경험 '리딩파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2차(9월 10일~11일)에서는 동네책방 '그 섬에 가게' 최섬 대표와 함께 마

음을 색으로 표현하며 위로하는 '마음 색깔' 시간을 갖는다. 또, 공동으로 △사색의 밤(개별 북스테이 공간에서 오롯이 책에 집중)과 더불어 도서관 여행을 통해 전주의 책속소와 책방, 도서관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

올해 첫 번째 전주서(書) 스테이 도서관 여행 신청은 1일부터 전주시도서관 누리집(mj.jonju.go.kr)을 통해 접수하며, 이후 여행부터는 여행일 3주 전 다음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이영섭 전주시 도서관경생학술본부장은 "전주서(書) 스테이 도서관 여행을 통해 도서관을 넘어 전주 곳곳의 책방과 문화공간의 가치를 널리 알리며 전주형책가방 도시 산업 모델을 계속해서 구축해 나가겠다"면서 "전주시민과 관광객들이 책이 있는 여행을 즐기도록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머무는 도시 전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폴란드의 항공우주 산업 중심도시인 제슈프시(Rzeszow) 대표단이 전주시와의 국제 우호 협력과 경제 교류를 위해 전주를 찾았다.

## 국제 우호 교류·산업 현장 시찰

### 폴란드 제슈프시 대표단, 3박 4일 일정으로 전주 방문

폴란드의 항공우주 산업 중심도시인 제슈프시(Rzeszow) 대표단이 전주시와의 국제 우호 협력과 경제 교류를 위해 전주를 찾았다.

전주시는 콘라드 피요예(Konrad Fijerek) 시장을 비롯한 제슈프시 대표단 5명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전주를 방문했다고 1일 밝혔다.

폴란드 제슈프시는 유럽 최대 항공 산업 클러스터인 '항공 밸리(Aviation Valley)'의 거점도시로, 대한민국 탄소산업 중심지인 전주시와는 지난해 6월 탄소복합체·항공우주 분야의 상호 경제발전 협력 강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양 도시는 또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주관으로 전주에서 열린 한·독·폴 '탄소복합체 테크브리지 국제포럼'에 참석하는 등 양 도시간 이루어진 지속

된 교류를 이어왔으며, 그 결과 이번 제슈프시 대표단의 방문이 성사됐다. 제슈프시 대표단은 전주 방문 일정 중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을 찾아 전주의 주력 산업인 탄소 산업 관련 연구 시설을 견학하고, 관내 기업 관계자들과 만나 실질적인 산업 역량을 확인했다.

또한 대표단은 전주한옥마을과 팔복 예술공장 등을 방문해 전주의 독특한 인문화 자산을 체험했으며, 전주문화재단 관계자들과 양 도시 간 문화 교류에 관하여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특히 양 도시는 공식 면담을 통해 각기 특화된 산업 인프라를 공유하고, 앞서 체결한 협약을 바탕으로 앞으로 도 항공우주와 탄소복합체 등 공동 관심 분야에서 공동 성장을 위한 기술 중심의 지속적인 비즈니스 교류를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다. /권희성 기자

## “하계올림픽 유치 위해 대규모 국제행사 유치하자”

### 전주시정연구원, '스포츠어코드' 유치 제안... JJRI 이슈브리프 발간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스포츠계의 다보스포럼으로 불리는 대규모 국제행사를 유치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주시정연구원(원장 박미자)은 2036 하계올림픽 유치 경쟁력을 높이고 전주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스포츠계의 다보스'로 불리는 국제행사인 '스포츠어코드(Sport Accord)' 유치를 제안하는 것을 골자로 한 'JJRI 이슈브리프 제18호'를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스포츠어코드(Sport Accord)'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인정한 각국 스포츠 연맹과 전 세계 스포츠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세계 최고 권위의 연례 스포츠 비즈니스 컨벤션으로, 해

마다 개최되는 이 행사에는 스포츠 분야의 최고 의사결정권자 1500명 이상이 참석해 전시·네트워킹·컨퍼런스를 진행한다.

세계 경제포럼(다보스포럼)이 세계 경제 지도자들의 연례 모임인 것처럼, 스포츠어코드는 세계 스포츠 지도자들이 한데 모이는 자리여서 '스포츠계의 다보스'로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이슈브리프는 2036 하계올림픽 유치전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전주만의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에 연구원은 인도·카타르·튀르키예 등 경쟁 국가와 도시들이 공격적인 유치 활동을 펼치는 가운데 올림픽

개최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인물과 단기간에 폭넓게 교류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스포츠어코드(Sport Accord)' 유치를 제시했다.

또한 연구원은 전주 컨벤션센터 준공 시기와 연계해 오는 2028년 개최를 목표로 한 단계별 추진방안도 제안했다.

주요 방향은 △세계 수준의 컨퍼런스 공간 조성(하드웨어) △한옥·미식·전통문화와 스포츠를 결합한 전주만의 콘텐츠 차별화(소프트웨어) △단순 행사를 넘어 실질적인 국제대회 유치로 이어지는 네트워킹의 장 마련 △공공 재정 부담을 줄이는 민간 공동수익 구조 설계 △국가 차원의 지원을 이끌어내어 국제 신뢰도 확보 △행사 이후에도 지역 사회에 지속적인 자산이 남는 레거시 창출 등이다.

아울러 전주가 '스포츠어코드(Sport Accord)'를 유치할 경우 △올림픽 유치의 교두보 확보 △도시 브랜드 제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세 가지 핵심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구체적으로 유치에 성공할 경우 전주는 IOC·국제연맹 핵심 인사들과 직접 교류하며 2036 올림픽 유치를 위한 실질 운영 능력을 세계에 증명할 수 있다. 또, '스포츠, 문화유산, 회복(Sports, Heritage, Recovery)'을 결합한 전주만의 이야기를 세계 무대에 알릴 글로벌 인지도를 단기간에 높일 수 있고, 일주일간의 대규모 국제 컨벤션 수요를 통해 숙박·외식 등 즉각적인 경제 효과와 함께 이후 국제대회 유치로 이어지는 중장기 투자 기회도 마련할 수 있다. /권희성 기자

## 전주시, 3자녀 이상 가구 패밀리카 지원사업 추진

전주시가 다자녀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족들이 이용할 차량을 구입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기로 했다.

시는 6~11인승 차량을 신규 구매하는 가구에 구매비용의 10%,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하는 '3자녀 이상 가구

패밀리카 지원사업'을 오는 21일까지 신청 접수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도내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가구로, 18세 이하(2007년 4월 2일 이후 출생자)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다.

시는 올해 총 30여 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배우자가 다른 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도 신청 및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차량은 공고일 이후 신규 등록된 차량으로, 당해연도 내 구매계약 및 출고가 완료된 경우에 한해 지원하며, 국내 공장에서 생산·제작돼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여야 한다.

단, △공고일 기준 가족구성원 명의

로 최초 등록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6인 이상 11인 이하 자가용 차량을 보유한 경우 △우사 목적의 차량 구입 보조금을 받았거나 지원 대상자로 확정된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차대번호의 최초 식별 문자가 'K(대한민국)'가 아닌 차량 △지방세 체납자 또는 보조사업 참여 제한 기간 중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권희성 기자

## 전주시, 재해예방사업 현장 점검 나서

전주시가 본격적인 여름철 우기를 앞두고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 중인 각종 재해예방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현장 점검에 나섰다.

시는 1일 건설안전국장을 비롯한 재난안전 관계부서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하소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월평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각종 재해예방사업 현장을 찾아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는 현장 행정을 펼쳤다.

먼저 점검단은 월평 신성공원 및 학소계 일원에서 추진 중인 '학소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현장을 찾아 건설사업관리단으로부터 공정 보고를 받은 뒤, 터파기 구간에 대한 우기 대비 토사 유출 방지 대책과 시설물 안전성을 꼼꼼히 살폈다. 총사업비 272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지하저류



조(8,200㎡)와 우수저류지를 신설해 평화동 일대의 고질적인 상습 침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어 시는 '월평 재해위험개선지구' (송천·전미동 일원) 현장을 찾았다. 시는 총사업비 461억 원이 투입되는 이 대규모 정비사업을 통해 고지배수로(2.29km)와 배수펌프장을 신설해 송천동 일원 저지대 및 전라선 침수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다. /권희성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 옛 전북의 구심점

###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견인차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명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출: 전주시 제공)

관공각

내아